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¹⁾**

임채영 수석연구원(cylim5@gnpass.or.kr)

김나현 선임연구원(nhkim@gnpass.or.kr)

경남의

고립·은둔 청소년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경상남도의 9~24세 청소년 중 고립·은둔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사전조사

청소년

2,231명

본조사

고립·은둔 청소년

34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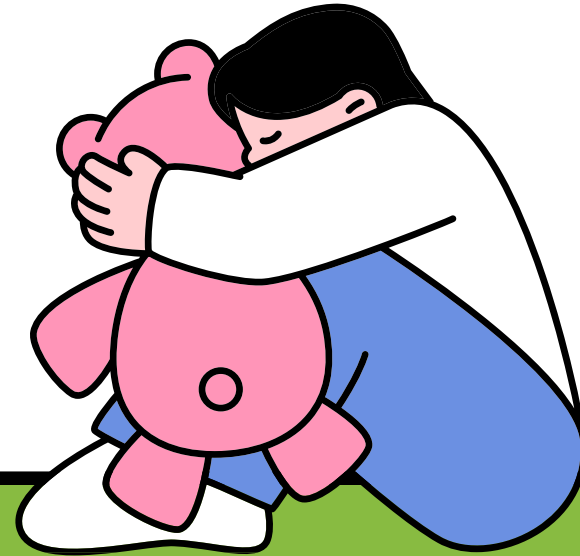


고립·은둔 청소년이란?



고립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상태



은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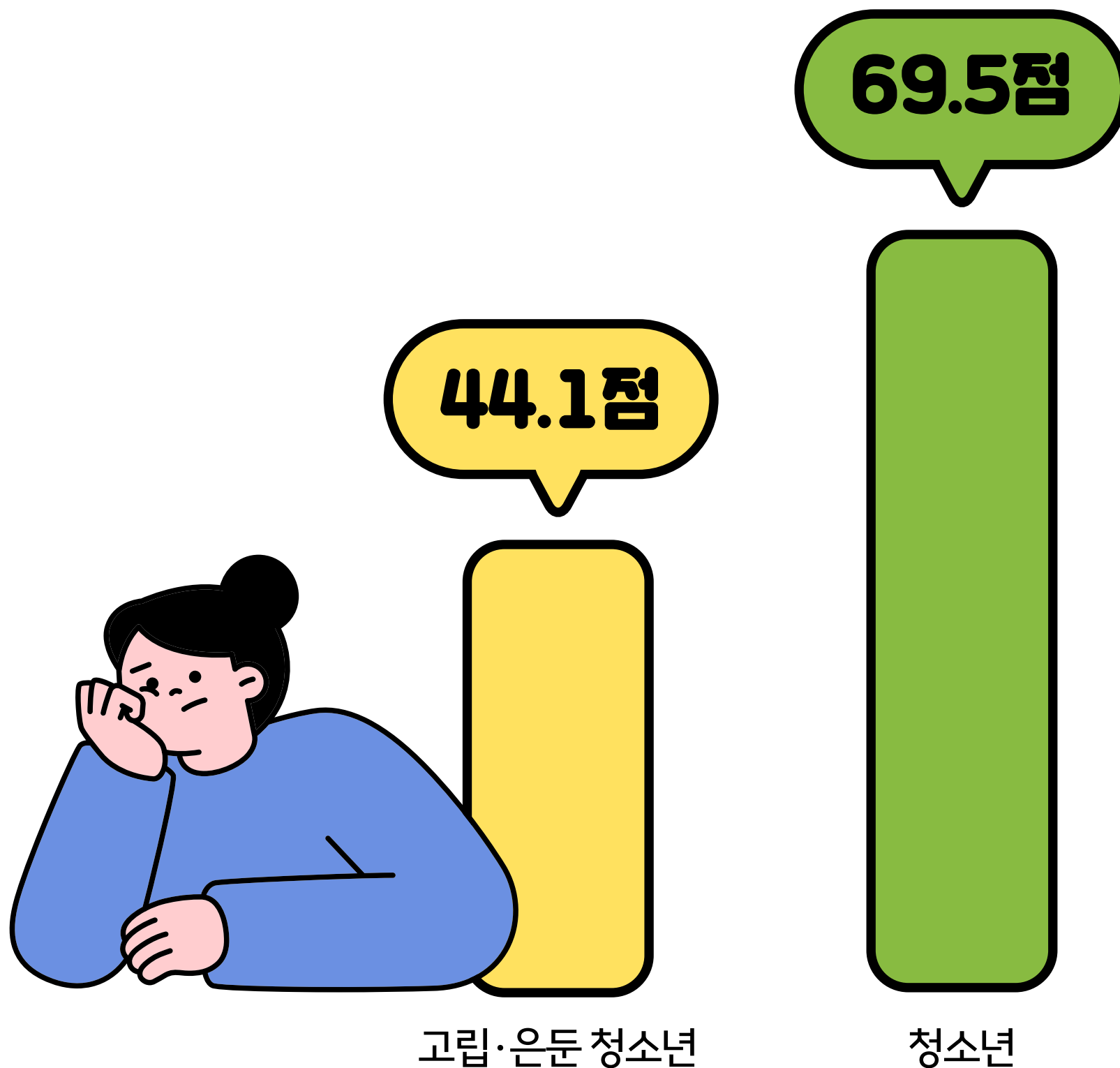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청소년

출처: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2023)

따라서 고립·은둔 청소년이란, 고립생활 또는 은둔생활
그리고 고립·은둔생활을 하는 청소년으로 정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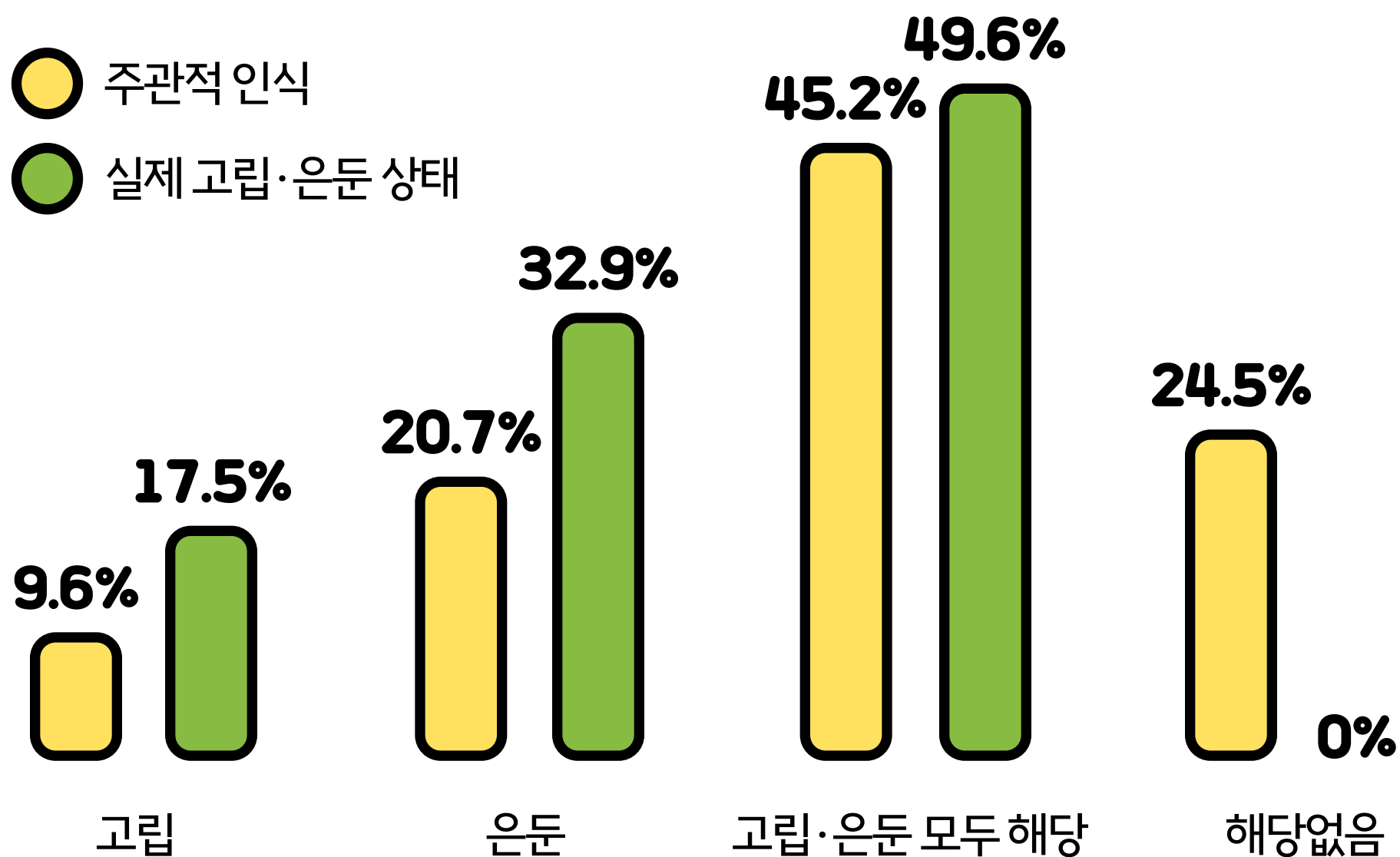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까?

고립·은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44.1점으로
청소년 69.5점에 비해 25.4점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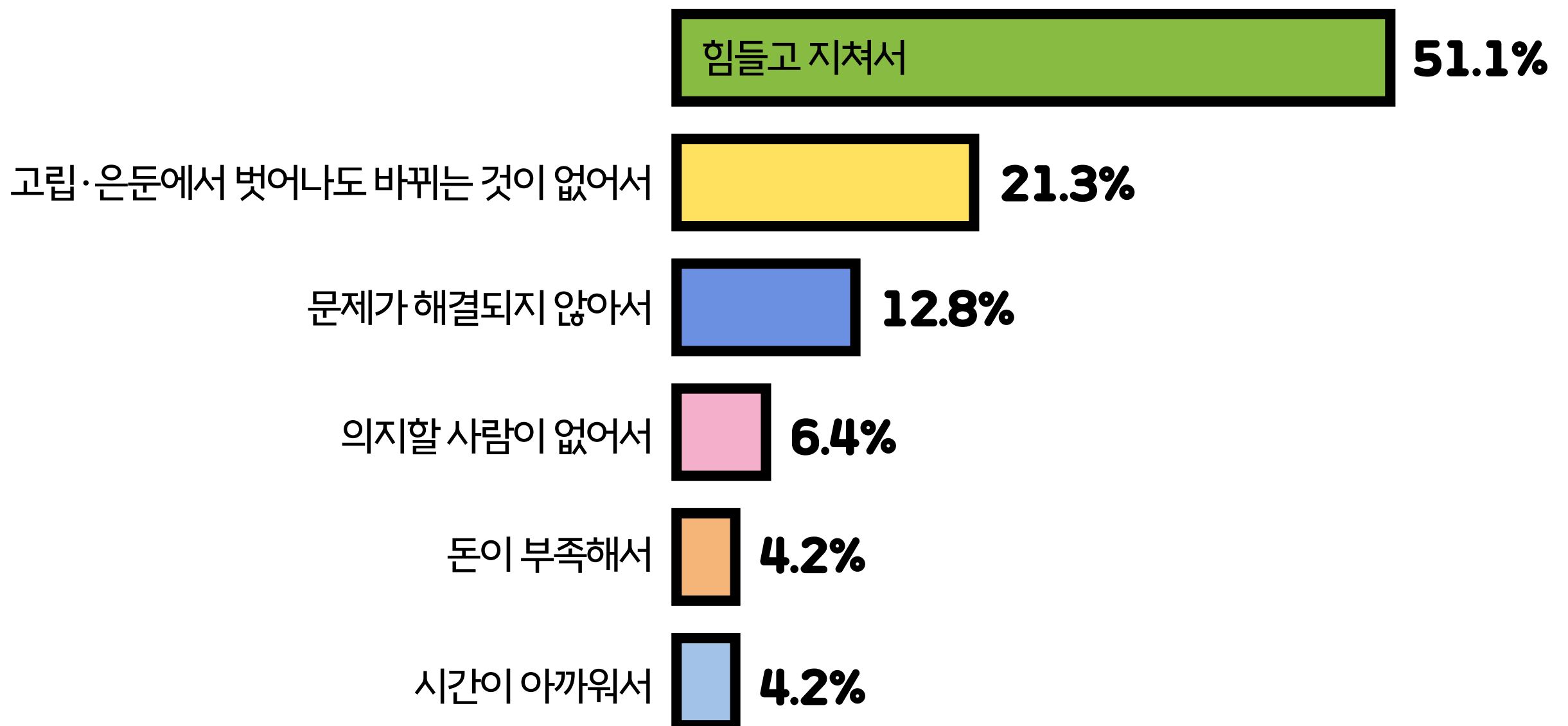
고립·은둔 청소년이 인식하는 주관적 상태와 실제 문항으로 구성된 고립·은둔 상태는 차이가 있을까?

실제 고립·은둔 청소년 중 24.5%는 자신이 고립 또는 은둔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상태를 고립·은둔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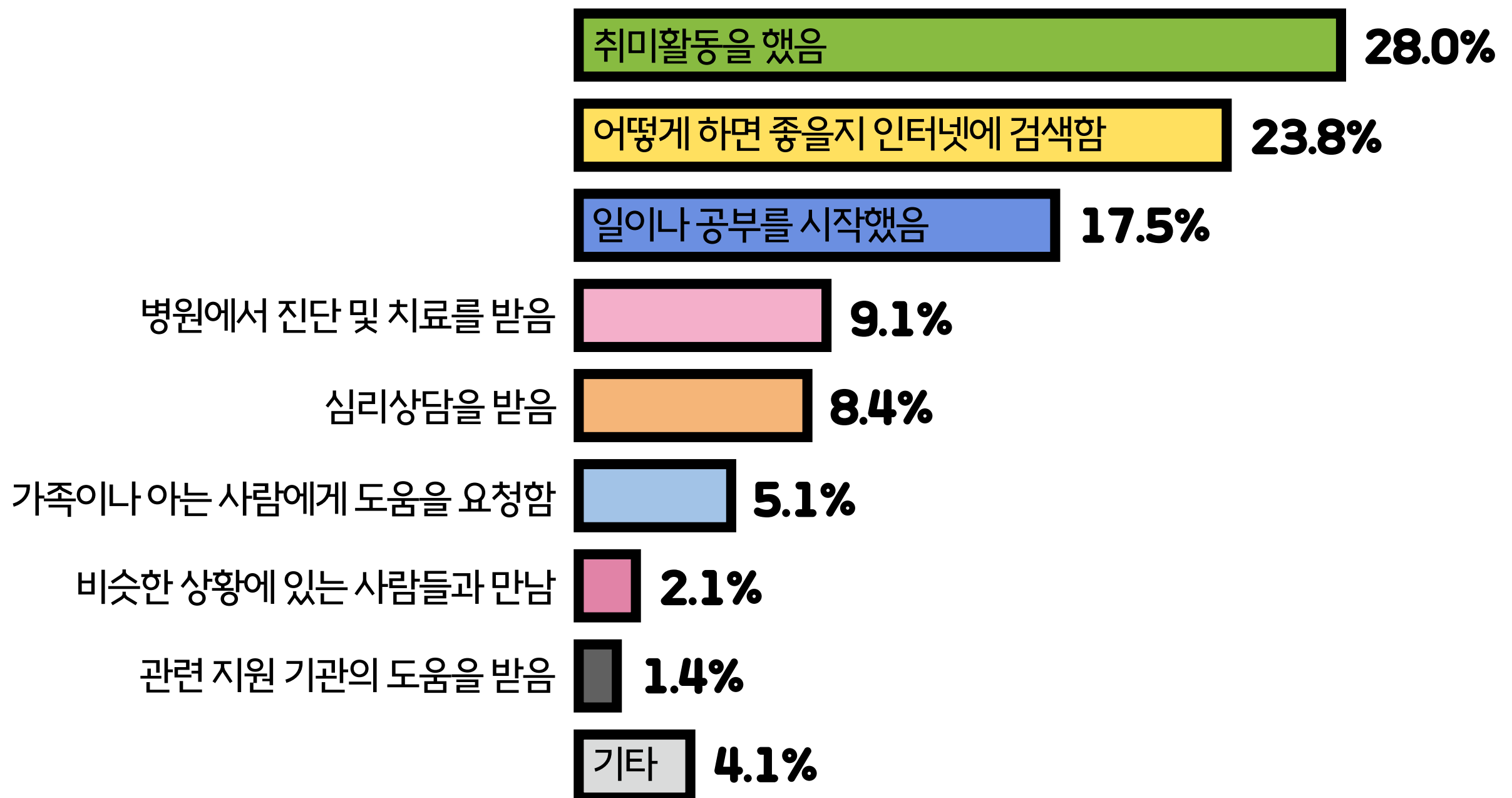
고립·은둔 청소년의 재고립 정도는 얼마나 될까? 재고립의 이유는 무엇일까?

본 조사에서 고립·은둔 청소년에 해당하는 343명 중 현재의 상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응답이 13.7%로 나타남. 다시 고립·은둔 상태가 된 이유는 힘들고 지쳐서, 고립·은둔에서 벗어나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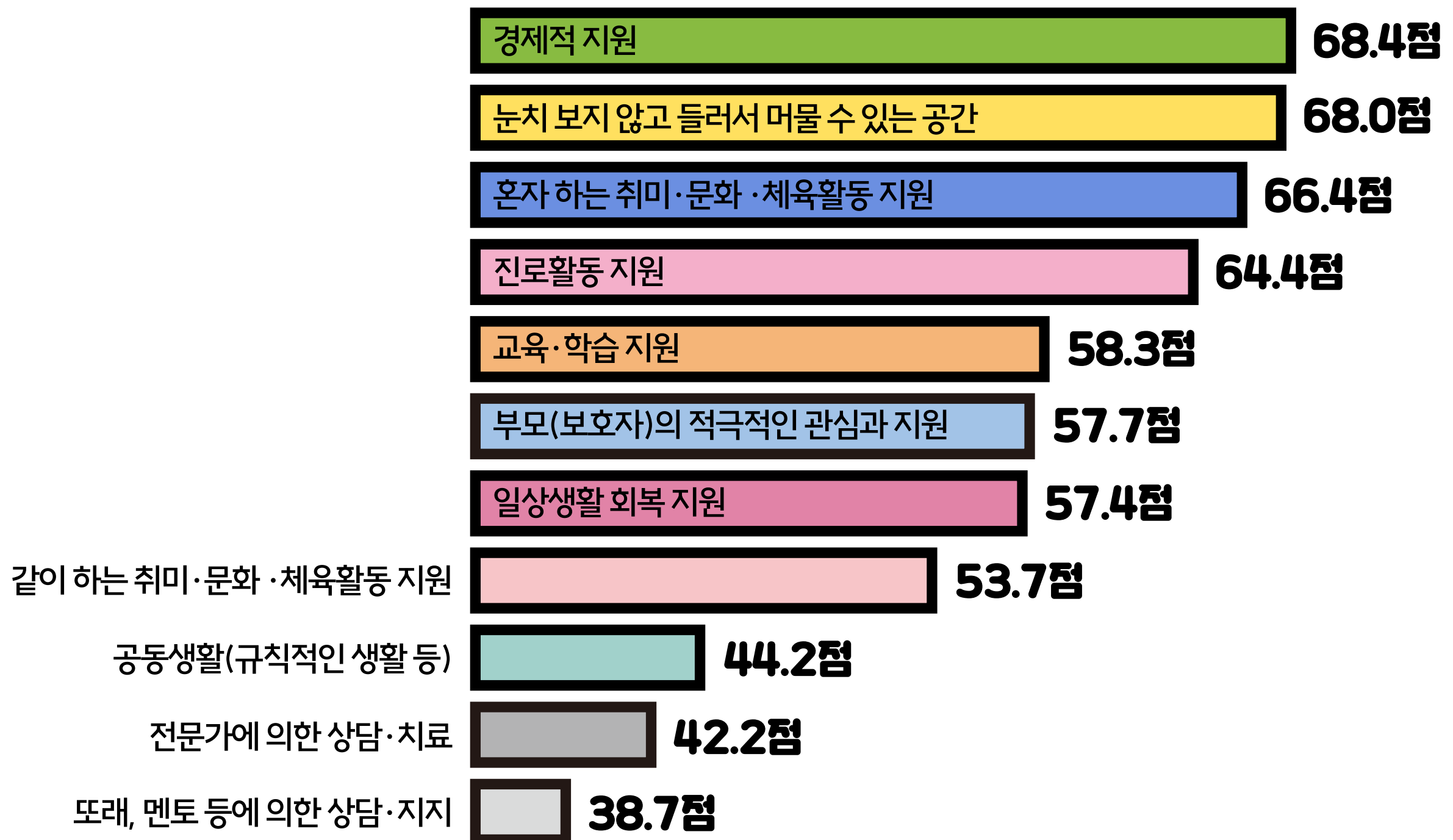
고립·은둔 청소년은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할까?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

고립·은둔 청소년의 55.1%는 현재의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함.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노력으로는 취미활동,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터넷에서 검색함, 일이나 공부를 시작함 등의 순으로 나타남



고립·은둔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은 무엇이 있을까?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필요한 도움은 경제적 지원,
눈치 보지 않고 들러서 머물 수 있는 공간,
혼자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고립·은둔은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일입니다.”**